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의 매개적 역할

Pathways from Maternal Parenting Behavior to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
Mediating Effects of Adolescents' Self-Control and Depression/Anxiety

이혜린(Hye-Rinn Lee)¹⁾

도현심(Hyun-Sim Doh)²⁾

김민정(Min-Jung Kim)³⁾

박보경(Bo-Kyung Park)⁴⁾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pathways from maternal parenting behavior to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through both self-control and depression/anxiety. Participants were 449 8th and 9th graders in Seoul.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dolescents' self-control, depression/anxiety, and internet addiction. Data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aternal parenting behavior indirectly influenced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through self-control and depression/anxiety. Self-control and depression/anxiety individually mediated between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internet addiction. However, maternal parenting behavior didn't directly affect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Self-control was influenced by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also played a crucial role in preventing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Key Words :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자기통제력(self-control), 우울/불안 (depression/anxiety),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

¹⁾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²⁾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아동학협동과정 교수

³⁾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artment of Psychology/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E-mail : simdoh@ewha.ac.kr

I. 서 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 6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76.3%로, 이 가운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99.3%와 99.9%에 이르러 대부분의 청소년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중독과 같은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순기능적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실제로, 밤을 새어가며 장시간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돌연사하거나, 인터넷에서 집단끼리 전쟁게임을 벌이다가 직접 만나 다투서 사망에 이르는 등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사건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동아일보, 2008. 3. 24).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 등의 심각한 문제에서부터 인터넷 사용시간을 조절하지 못해 만성피로를 경험하거나 성적저하, 불면, 식욕부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심리적 통제력의 저하로 가족관계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김윤희, 2006; 한기홍·최은구·안권순, 2006). 이처럼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빈번히 보고되면서, 최근 들어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요인들을 발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관련 변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교사와 친구의 지지 등이, 청소년의 개인관련 변인으로는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공격성, 충동성, 외로움, 우울, 불안 등이 포함된다(김세영, 2005; 윤숙진, 2004; 윤현민, 2005; Pratarelli, Browne, & Johnson, 1999; Young, 1998).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학교, 친구 등의 다양한 환경 요인들 가운데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사고와 생활습관 등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문수경, 2004; 임정하, 2003).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로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나누는 등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지향, 2005). 예를 들면, 2,075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이수진·홍세희·박중규, 2005)에 따르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감소하였다. 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독재적이고, 거부-통제적일 경우, 중학생의 게임 중독 및 인터넷 중독수준은 높았다(전요섭·김수경·박은정, 2008).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긍정적 양육이 어린 시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건강한 발달에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들로는 자기통제력(김정애, 2006)과 우울 및 불안(김윤희, 2006) 등을 들 수 있다. 자기통제력은 상황적인 요구에 적합하게 스스로 행동할 수 있으며 미래에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즉각적인 만족이나 충동을 억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으로서, '충동성이나 즉각적 만족'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Logue, 1995). 따라서, 자기통제력이 낮거나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인터넷 중독 성향을 보다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김정애, 2006; 조영란, 2003).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1년 후의 인터넷 사용 수준 변화를 알아본 단기종단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스트레스, 공격성, 자기통제력, 비행행위, 음주경험, 흡연경험, 성적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 가운데 낮은 자기통제력은 인터넷 중독 성향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박선희 · 전경자, 2007).

자기통제력 외에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요인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에서 많은 신체적 · 심리적 변화가 생기는 과도기적 시기로,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Achenbach, 1991). 특히, 우울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높은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을 보였다(이은선, 2006; Gunn, 1998). 불안, 소외감, 위축 등의 심리적 특성도 인터넷 중독과 관련 되어, 불안수준이 높을 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은 증가하였다(정경란, 2001). 또한, 소외감과 고립감이 높고, 내향적인 청소년들도 인터넷 중독을 많이 경험하였다(김선우, 2002; 김윤희, 2006; 박선영, 2005).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청소년의 높은 우울과 불안이 인터넷 중독 성향을 예측하는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염영란, 2007; 오원옥, 2007; 이은선, 2006; 한국 정보문화진흥원, 2008; Gunn, 1998). 이처럼, 청소년의 우울/불안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주요한 행동문제로 다양한 정서 문제를 동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뒤이어 언급할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기통제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살펴본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 등은 또한 서로 밀접한 인과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먼저 부모의 부정적 양육 행동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다루어져왔다. 예를 들면, 부모가 과보호하는 청소년은 외적 통제를 하게 되어 통제감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

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였다(이소미, 2002). 또 다른 연구에서도, 자녀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자율적 · 수용적 · 통제적으로 지각할 뿐만 아니라(오현화, 2002),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온정적 · 수용적이고, 가정환경이 자녀의 독립심을 격려하고 지지할 때 청소년은 높은 자기통제력을 보였다(김혜순 · 강기숙, 2005; 홍애경, 2000; Silverman & Ragusa, 1990). 반면에, 부모의 양육행동을 거부적으로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낮았다(주동범, 2002).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자녀의 지각 및 정서가 긍정적일 때, 청소년의 우울/불안 수준은 낮았으나(Patten, Coffey, Posterino, Calin, & Wolfe, 2001; Phares & Renk, 1998), 부모의 과도한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우울/불안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었다(Sato, Sakado, Uehara, Narita, Hirano, Nishioka, & Kasahara, 1998). 국내 연구에서도, 우울/불안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정상집단보다 부모의 학대, 과잉간섭, 과잉기대, 방임 및 비밀관성이 높고 온정성은 낮다고 지각하였다(손석한 · 노경선 · 허묘연 · 정현옥 · 이소희 · 김세주, 2001).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우울/불안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것으로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양자간의 관계에 있어 부모의 양육행동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본 연구를 통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우울/불안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두 변인 간에도 서로 관련이 있어,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은 우울/불안을 덜 경험하였다(윤영신, 2007). 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높은 내적 통제력은 우울/불안을 감소시켰다(최운정 · 이시연, 2006). 특히, 아동의 우울 성향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부모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자기조절능력 가운데 자기조절능력은 우울 성향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조옥자, 2005), 개인내적 변인으로서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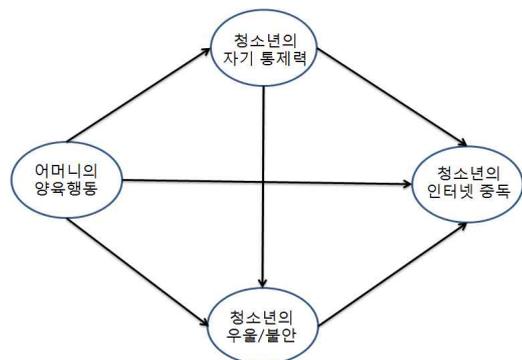
이와 같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초래하는 선행 변인으로서의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은 서로 인과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세 변인이 각각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을 밝힌 연구결과들은 발견되나, 그 경로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가운데 몇몇 변인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발견한 연구들은 이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기조절력을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거나(조영란, 2003), 청소년의 자기통제감을 통해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쳤다(이소미, 2002). 즉, 부모가 자녀를 지지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청소년은 높은 자기조절력 혹은 자기통제감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그들은 인터넷 중독을 덜 경험하였다. 또한, 부모의 돌봄이 낮거나 과보호적 양육은 청소년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자기조절력은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이소미, 2002). 이 외에도,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우울/불안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김정애, 2006), 부모가 애정, 자율, 성취 등과 같은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청소년은 우울/불안을 덜 경험하며, 나아가 인터넷 중독 성향을 덜 보였다.

요약해 보면,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학습을 통해 발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향상 또는 저하될 수 있고, 자기통제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하는 수준에 차이가 생겨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의 우울/불안은 궁극적으로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을 높이라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 등 각 변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우울/불안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N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에 재학 중인 449명의 청소년들(남학생 : 210명, 여학생 : 239명)로서, 2학년생과 3학년생은 각각 230명(51.2%)과 219명(48.8%)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각각 280명(62.4%)과 289명(64.4%)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이 199명(44.3%),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272명(60.6%)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경제수준과 관련하여, 연구대상 전체의 72.2%(324명)가 중류로 지각하고 있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우울/불안 및 인터넷 중독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척도는 청소년 자신에 의해 평가되었다. 각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으로 응답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온정성 및 거부/제재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우울/불안 및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홍성훈(2002)의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온정성(5문항), 거부/제재(15문항) 및 허용/방임(9문항) 등 3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온정성 요인은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신다’, ‘나에게 다정

스럽게 대하신다’ 등으로, 거부/제재 요인은 ‘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화를 내실 때가 많다’, ‘내가 어머니와 다른 의견을 주장하려하면 버릇이 없다고 야단을 치신다’ 등으로, 허용/방임 요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거의 뭐든지 다하게 해 주신다’, ‘내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해버리실 때가 많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을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분석한 결과, 허용/방임 요인은 요인부하량이 .082로 낮게 나와 본 분석에서는 제거하였다. 따라서 잠재변수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측정변수에는 온정성 및 거부/제재 요인만이 포함되었다. 온정성과 거부/제재의 Cronbach's α 는 각각 .82와 .92이었다.

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남현미(1999)의 자기통제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기통제력 척도(Self-Control Scale)와 김현숙(1998)이 변안한 Kendall과 Willcox(1979)의 자기통제력 평정척도(Self-Control Rating Scale : SCRS)를 재구성한 것으로, 장기적 만족추구 요인(10문항)과 즉각적 만족추구 요인(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적 만족추구 요인은 보다 집중력이 있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며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는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생각을 먼저하고 행동한다’, ‘나는 지금 당장 즐거운 일이라도 나중에 손해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다’ 등과 같은 문항들이 포함된다. 즉각적 만족추구 요인은 충동적이고 자기위주로 생각하며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한다’, ‘나는 다른

친구들이 하는 놀이나 활동에 불쑥 끼어들어 참견하거나 방해한다' 등과 같은 문항들이 포함된다. 분석시에는 남현미(1999)의 연구에서와 같이, 즉각적 만족추구 요인을 역코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척도에서는 '보통이다(3점)'를 포함하는 5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했으나, 본 척도에서는 보다 분명한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4점 Likert식 척도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장기적 만족추구 요인은 요인부하량이 .296으로 낮게 산출되어 제거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잠재변수당 2개 이상의 측정변수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Little과 동료들(2002)의 제안에 근거하여 파슬링(Parcelling)을 사용하였다. 즉, 즉각적 만족추구 요인의 10개 문항을 각각 5개 문항씩 묶어 자기통제력1 및 자기통제력2 요인으로 구분함으로써, 잠재변수인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설명하는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측정변수의 Cronbach's α 는 자기통제력1과 자기통제력2가 각각 .61과 .60이었다.

3) 청소년의 우울/불안

청소년의 우울/불안은 박진경(2001)의 문제행동 척도에 포함된 내재화 행동 가운데 우울/불안 요인을 사용하였다. 이는 Achenbach(1991)가 아동·청소년 행동 및 정서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청소년 자기보고용 아동행동 체크리스트(CBCL/YSR)를 번안한 것이다.¹⁾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울/불안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우울(7문항)과 불안(7문항)의 두 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우울 요인은 '외롭다', '스스로 열등하고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등으로, 불안 요인은 '걱정이 많다', '자극을 두려워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α 는 우울이 .83, 불안 .82이었다.

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2)이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K-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다음과 같이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즉, 일상생활장애(9문항, 예: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생활이 불규칙해졌다'), 현실구분장애(3문항, 예: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에도 하고 있는 듯한 환상을 느낀 적이 있다'), 긍정적 기대(6문항, 예: '인터넷을 하면 스트레스가 모두 해소되는 것 같다'), 금단(6문항, 예: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가상적 대인관계지향성(5문항, 예: '실제에서 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이탈행동(6문항, 예: '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및 내성(5문항, 예: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두면 또 하고 싶다')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는 .75-.89에 속하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08년 4월에 경기도 S시에 위치한 N 중학교의 2학년과 3학년 각각 8개 학급씩 총 16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담임교사들에게 질문지 조사방법 및 응답시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각 교사는 청소년들에게 질문지를 배부·실시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회수된 474부의 질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1) 오경자·하은혜·이혜련·홍강의(2001)는 Achenbach(1991)의 CBCL/YSR을 한국판(K-YSR)으로 표준화하였다.

25부를 제외하고, 총 449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15.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AMOS 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는데, 이 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대신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χ^2 검증은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하여 너무 쉽게 기각되며 표집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어려움이 있어, 여러 적합도 지수 중 RMSEA, TLI 및 CFI를 고려하였다. 특히 RMSEA와 TLI는 표본의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는 적합도 지수이고, CFI는 모형의 간명성은 고려하지 않지만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도 지수로서, 이러한 적합도 지수는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세희, 2000).

III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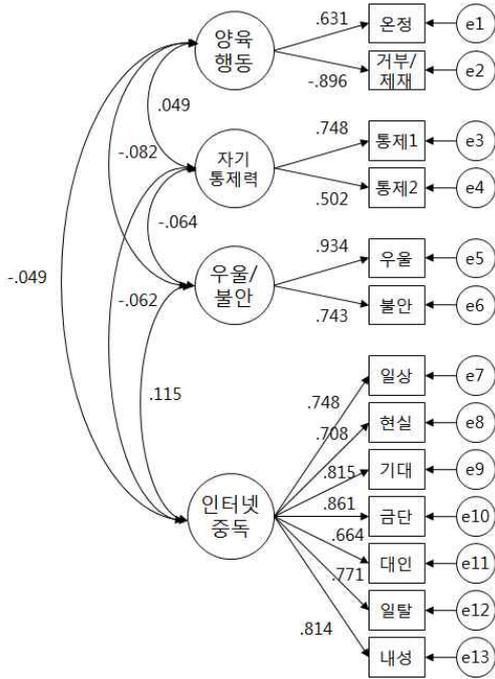
1. 측정모형 분석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조사도구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앞서 조사도구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측정변수 중 하나인 허용/방임 요인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의 측정변수 중 하나인 장기적 만족추구 요인이 제거되었다. 또한, 자기통제력은 파슬링을 통해 자기통제력1과 자기통제력2로 구분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다시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두 요인부하량은 .500이상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표 1>, <그림 2>), 적합도 지수는 RMSEA=.065, TLI=.944, CFI=.958이었다.

<표 1>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SE	t	p
어머니의 양육행동	온정성	1	.631	-	-	-
	거부/제재	-1.306	-.896	.198	-6.595	***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1	1	.748	-	-	-
	자기통제력2	.827	.502	.147	5.628	***
청소년의 우울/불안	우울	1	.934	-	-	-
	불안	.898	.743	.080	11.170	***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일상생활장애	1	.748	-	-	-
	현실구분장애	.707	.708	.047	15.061	***
	긍정적 기대	1.078	.815	.061	17.610	***
	금단	1.003	.861	.054	18.693	***
	가상적 대인관계지향성	.783	.664	.056	14.048	***
	일탈행동	.912	.771	.055	16.556	***
	내성	1.189	.814	.068	17.584	***

*** $p < .001$



<그림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2. 상관관계 분석

구조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전체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표 2>). 어머니의 온정성과 거부/제재,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우울/불안은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가 덜 온정적이고 거부/제재적이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낮고, 우울/불안이 높을 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은 높았다. 또한, 어머니의 온정성 및 거부/제재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은 서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온정성이 낮고 거부/제재가 높고,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청소년은 우울/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어머니가 덜 온정적이고 거부/제재적일 때 청소년은 스스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

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3. 구조모형 분석 :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측정모형을 통해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065, TLI=.944, CFI=.958로 산출됨으로써,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달리($\beta=-.022, p>.05$), 청소년의 자기통제력($\beta=-.305, p<.001$) 및 우울/불안($\beta=.342, p<.001$)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은 유의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beta=-.261, p<.001$)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beta=-.279, p<.001$)은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beta=.385, p<.001$)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4>).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과 인터넷 중독간에 유의한 경로가 발견되어, 어머니를 덜 온정적이고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낮았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우울/불안은 높았으며, 나아가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을 경험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인터넷 중독 간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우울/불안 및 인터넷 중독간에도 유의한 경로가 발견되었다. 즉, 어머니가 덜 온정적이고 거부/제재적

<표 2>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44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어머니의 온정성	-												
2. 어머니의 거부/제재	-.565***	-											
3. 청소년의 자기통제력1	.194***	-.235***	-										
4. 청소년의 자기통제력2	.101*	-.230***	.375***	-									
5. 청소년의 우울	-.211***	.314***	-.249***	-.201***	-								
6. 청소년의 불안	-.166***	.225***	-.202***	-.230***	.693***	-							
7. 청소년의 일상생활장애	-.133**	.161***	-.232***	-.179***	.310***	.249***	-						
8. 청소년의 현실구분장애	-.123**	.136**	-.354***	-.088	.366***	.258***	.538***	-					
9. 청소년의 긍정적 기대	-.142**	.201***	-.250***	-.153***	.364***	.293***	.584***	.575***	-				
10. 청소년의 금단	-.148**	.200***	-.311***	-.146***	.377***	.327***	.603***	.630***	.739***	-			
11. 청소년의 가상적 대인관계지향성	-.134**	.150***	-.231***	-.088	.301***	.228***	.446***	.494***	.582***	.551***	-		
12. 청소년의 일탈행동	-.182***	.235***	-.355***	-.155***	.327***	.239***	.582***	.540***	.592***	.647***	.560***	-	
13. 청소년의 내성	-.113*	.173***	-.212***	-.084	.311***	.270***	.710***	.517***	.642***	.700***	.510***	.654***	-
<i>M</i>	2.90	2.03	3.30	2.58	1.65	2.00	1.68	1.25	1.60	1.48	1.54	1.58	1.70
<i>SD</i>	.64	.59	.42	.51	.59	.66	.61	.45	.60	.53	.54	.54	.66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의 적합도

χ^2	<i>df</i>	<i>p</i>	RMSEA (90% 신뢰구간)	TLI	CFI
170.237	59	.000	.065(.054-.076)	.944	.958

이라고 지각할수록, 청소년은 낮은 자기통제력을 보였으며, 나이가 인터넷 중독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또한, 이러한 양육행동으로 인해 청소년은 우울/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나이가 인터넷 중독을 경험하는 경향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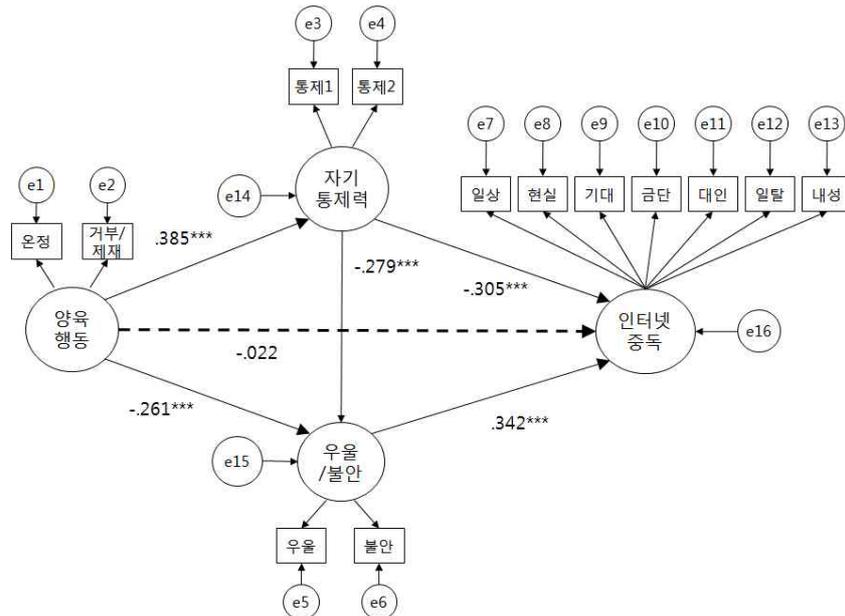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표 5>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표 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i>B</i>	β	<i>SE</i>	<i>t</i>	<i>p</i>
어머니의 양육행동 →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025	-.022	.066	-3.76	.707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446	-.305	.125	-3.572	***
청소년의 우울/불안 →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284	.342	.053	5.359	***
어머니의 양육행동 → 청소년의 우울/불안	-.351	-.261	.085	-4.144	***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 청소년의 우울/불안	-.492	-.279	.144	-3.421	***
어머니의 양육행동 →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294	.385	.053	5.517	***

*** $p < .001$



주) 점선은 비유의적인 경로임.
*** $p < .001$

<그림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총효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정도인 다중상관치 (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300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우울/불안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

<표 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어머니의 양육행동 →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	-.243	-.243	.300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305	-.095	-.400	
청소년의 우울/불안 →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342	-	.342	
어머니의 양육행동 → 청소년의 우울/불안	-.261	-.107	-.368	.20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 청소년의 우울/불안	-.279	-	-.279	
어머니의 양육행동 →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385	-	.385	.148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경로를 비롯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을 통한 두 번째 경로와 우울/불안을 통한 세 번째 경로 등 세 가지 경로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해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로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을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비온정적이고, 거부/제재적일수록 청소년은 낮은 자기통제력을 보였고,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은 우울/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인터넷 중독을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경로는 부모의 양육을 부정적으로 지각한 청소년은 외적 통제를 하게 되어 자기통제감이 낮아져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이소미, 2002)나 우울/불안이 높은 청소년은 높은 인터넷 중독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김윤희, 2006; 박선영, 2005; 조영란 · 이화자, 2004; Katz & Aspden, 1997)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먼저,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발견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애정이 부족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지각할 때, 자기통제력과 자기조절능력이 낮았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윤영신, 2007; 주동범, 2002)이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적으로 지각할수록 낮은 자기통제력을 보였다는 연구결과(주동범, 2002)와 일치한다. 즉, 어머니가 비온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 조절력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남재희, 2004), 자녀를 거부/제재적으로 양육할 경우 자녀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더

욱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본 연구변인들간에 발견된 직접적 영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하여 뒤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청소년은 우울/불안을 더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외부의 통제가 아닌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우울/불안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들(윤영신, 2007; 최윤정 · 이시연, 2006; Hart, Hofmann, Edelstein, & Keller, 1997; Vasey, Dalgleish, & Silverman, 2003)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불안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 정서 및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은 능동적인 대처 능력과 성취감을 경험하기 쉽고 나아가 우울/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울/불안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을 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청소년의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연구결과들(정경란, 2001; 조춘범 · 송아영 · 이순호, 2007; Gunn, 1988; Young, 1999; Young & Rogers, 1998)과 일치한다. 즉, 심리적 부적응 문제인 우울/불안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일상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동기부여나 자존감이 부족하거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빠져들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경로,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의 자아통제력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또한 유의적이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비애정적, 비합리적일수록 청소년의 충동성이 증가되고 자기통제력이 약화되어 인터넷 중독 성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조영란, 2003)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경로에서, 특히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 성향을 보다 많이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결과들(김정애, 2006; 이지혜 · 오경옥, 2006; 한정선 · 김세영, 2006; Robert, Carolyn & Matthew, 2003)과 유사한 것으로, 자기통제력과 유사한 개념인 충동조절능력이 부족할수록 인터넷에 과도하게 몰입된다는 연구결과들(이유경, 2002; Shapora, Goldsmith, Keck, Khisla, & McElroy, 2000; Treuer, Fabian, Furedi, 2001)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청소년은 스스로 인터넷 사용수준을 통제하거나 조절하기보다 즉각적인 욕구에 따라 인터넷을 무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쉬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이 인터넷에 병리적으로 집착하는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변인들 가운데 자기통제력은 인터넷 중독에 대해 가장 커다란 총효과를 나타냄으로써 그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변인들 가운데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통제력이었으나, 동시에 자기통제력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이러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의 높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직접적 · 간접적 영향력은 물론,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경로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우울/불안을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온정적이지 못하고, 거부/제재적일수록 청소년의 우울/불안은 높았고, 나아가 이러한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적대적이고 통제적이며 비합리적인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우울을 증가시켜 인터넷 중독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김정애, 2006)와 일치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거치지 않고 우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울/불안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비애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남녀 아동 모두 우울/불안이 높았던 연구결과(문경주 · 오경자, 2002)와 일치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거부적이고 무관심한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이 높게 나타난 국내외 연구결과들(김애경, 2002; Burbach, Kashani, & Rosenberg, 1989)과 부모가 자녀를 과도하게 간섭하고 통제적으로 양육할 경우 청소년의 우울/불안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김보경 · 민병배, 2006; Barber, Olsen, & Shagle, 1994; MacKinnon, Henderson, & Andrews, 1990; Sato et al., 1998)과도 일치한다. 즉, 청소년 자녀에게 부모가 비온정적, 거부적이거나 이들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과 같은 부정

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율성 발달을 저해하고 심리적 무력감을 갖게 하여 우울/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우울의 효과적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부모의 긍정적 자녀양육이 중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의 어머니 양육행동은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우울/불안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본 연구변인들 가운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인터넷 중독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며, 동시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력 증진을 도울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대상으로 긍정적 양육의 실천을 도움으로써 청소년 자녀의 자기통제력을 직·간접적으로 증진하고자 하는 중재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인터넷 중독점수는 높지 않은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인터넷 중독은 엄격히 말하자면 일종의 인터넷 중독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심각한 수준의 인터넷 중독 집단을 연구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모두 청소년 자신에 의해 평가됨으로써 변인간의 관계가 다소 과장되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부모와 교사 및 또래 등 보다 다양한 평가자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료수집상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횡단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그 인과관계를 밝혔다. 그러나,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보다 적절히 밝히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설계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외에도,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양육행동의 영향력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양자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인터넷 중독현상이 저연령화되는 추세와 관련하여,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학령기 아동을 포함하여 살펴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즉,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서 부모는 물론 청소년 자신의 개인적 요인이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발견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자기통제력의 커다란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인터넷 중독 문제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개입 시 자기통제력의 향상을 돕는 중재가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참 고 문 헌

- 김보경·민병배(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5(1), 221-236.
- 김선우(2002).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영향요인 연구 : 소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영(2005).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 유형, 자기 통제력, 자기조절학습능력

-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경(2002).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원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외현적 문제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6(3), 31-50.
- 김윤희(2006).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정신건강 모형구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애(2006). 부모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 요인에 관한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순·강기숙(2005). 유아의 지능, 가정양육환경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17-26.
- 남제희(200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현미(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동아일보(2008. 3. 24). 인터넷 중독도 정신병, 한국 심각. <http://www.donga.com>에서 2008년 3월 30일 인출.
- 문경주·오경자(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문수경(2004).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2005). 아동의 외톨이 성향과 게임중독 위험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희·전경자(2007). 중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수준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청소년학연구*, 14(2), 71-93.
- 박진경(2001). 어머니의 감독 및 감독방법과 청소년의 외현화·내면화 행동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석한·노경선·허묘연·정현옥·이소희·김세주(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4), 605-615.
- 염영란(2007).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하은혜·이혜련·홍강의(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오원옥(2007).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동간호학회지*, 13(1), 81-89.
- 오현화(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수진(2004). 중·고교생의 충동성 및 자기효능감과 인터넷 사용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신(2007).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현민(2005).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공격성 및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미(2002).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홍세희·박종규(200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개인적, 가족적 변인간의 연구: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 연관성. *교육심리연구*, 19(4), 1179-1197.
- 이유경(2002). 컴퓨터 게임 중독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선(2006). 청소년기 우울증상과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비행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향(2005). 인터넷 환경 변인과 증세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혜·오경옥(2006).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우울과 자기통제. *충남대 간호학술지*, 9(1), 39-53.
- 임정하(2003).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요섭 · 김수경 · 박은경(2008). 아버지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차이. *청소년학연구*, 15(2), 257-275.
- 정경란(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과 가족의 심리적 환경 및 불안, 우울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란(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측모형.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란 · 이화자(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모형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4(3), 541-551.
- 조옥자(2005). 게임중독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호서대학교 여성문화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춘범 · 송아영 · 이순호(2007).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우울의 매개효과와 문제해결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6, 73-103.
- 주동범(2002).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지각된 양육방식이 초기 청소년의 자기통제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9(2), 23-43.
- 최윤정 · 이시연(2006). 빈곤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와 비행,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1, 89-113.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2). 인터넷 중독 자기진단개발 연구보고서. 서울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서울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 인터넷 중독의 특성 분석 연구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기홍 · 최은구 · 안권순(2006). 인터넷 중독과 충동성이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3(6), 409-428.
- 한정선 · 김세영(2006).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 유형, 자기 통제력,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2(2), 161-188.
- 홍성훈(2002).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19(1), 161-177.
- 홍애경(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 University of Vermont.
-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4), 1120-1136.
- Burbach, D. J., Kashani, J. H., & Rosenberg, T. K. (1989). Parental bonding and depressive disorders i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3), 417-429.
-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Gunn, D. A. (1998). *Internet addiction*. Project Presented to the University of Hertfordshire, UK. World Wide Web.
- Hart, D., Hofmann, V., Edelstein, W., & Keller, M. (1997). The relation of childhood personality types to adolescent behavior and development : A longitudinal study of Icelandic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95-205.
- Katz, J. E., & Aspden, P. (1997). A nation of strangers. *Communications of the ACM*, 40(12), 81-86.
- Kendall, P. C., & Wilcox, L. 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1020-1029.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151-173.
- Logue, A. W. (1995). *Self-Control : Waiting until tomorrow for what you want today*. Englewood

- Cliffs, NJ : Prentice Hall.
- MacKinnon, A. J., Henderson, A. S., & Andrews, G. (1990). Genetic and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the lability of trait neuroticism and the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20(3), 581-590.
- Patten, G. C., Coffey, C., Posterino, M., Calin, J. B., & Wolfe, R. (2001). Paternal affectionless control in adolescent depressive disorder.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6, 475-480.
- Phares, V., & Renk, K. (1998). Perception of parents : A measure of adolescent's feelings about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3), 646-659.
- Pratarelli, M., Browne, B., & Johnson, K., (1999). The bits and bytes of computer/internet addiction : A factor analytic approach.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and Computers*, 31(2), 305-314.
- Robert L., Carolyn A. L., & Matthew S. E. (2003). Unregulated internet usage : Addiction, habit, or deficient self-regulation. *Media Psychology*, 5(3), 225-253.
- Sato, T., Sakado K., Uehara, T., Narita, T., Hirano S., Nishioka K., & Kasahara, Y. (1998). Dysfunctional parenting as a risk factor to lifetime depression in a sample of employed Japanese adults : Evidence for the affectionless control hypothesis. *Psychol Med*, 28(3), 737-742.
- Shapora, N. A., Goldsmith, T. D., Keck, P. E. Jr., Khisla, U. M., & McElroy, S. L. (2000). Psychiatric features of individuals with problematic internet us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57, 267-272.
- Silverman, I. W., & Ragusa, D. M. (1990). Child and maternal correlates of impulse control in 24-month-old children. *Genetic, Social, and Psychology Monographs*, 116, 435-473.
- Treuer, T., Fabain, Z., & Furedi, J. (2001). Internet addiction associated with feature of impulse control disorder : Is it a real psychiatric disorder.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66, 283.
- Vasey, M. W., Dalgleish, T., & Silverman, W. K. (2003). Research on 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 A critical commentary.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2, 81-93.
-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 Evaluation and treatment. *Student British Medical Journal*, 7, 351-352.
- Young, K. S., & Rogers, R. C.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1), 25-28.

2008년 12월 31일 투고, 2009년 3월 2일 수정
2009년 3월 13일 채택